전능자와 동행 위한 음성인식

(시편 93:1~5)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전능자와 동행 위한 '음성인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전능자와 동행 위한 '음성인식'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생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술들 중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신호를 받아들인 컴퓨터는 그것을 문자나 문장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작동을 합니다. 이런 기술을 응용해서 많은 회사들이 음성인식 비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시리(Siri), 구글은 구글 나우(Google Now),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타나(Cotana)라는 이름의 음성인식 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발전된 IT기술을 통해 기계들이 음성을 인식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개발해봐야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 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두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는 유일하고 최고이신 가치로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높은 가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지존자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곳에 머물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 대해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활동하시면 정작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오감을 통해 끊임없이 감각 재료들을 받아들이는 나는 비석처럼 서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내 언어의 능력으로 말하고 내 활동의 능력은 움직여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조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삶의 영역에는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심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소리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함으로서 내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전능자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나를 사로잡고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함으로서 나로 하여금 그 뜻에 맞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 말하게 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러한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성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함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고 어떤 상태여야 되는 것일까요?

본 시는 1~2절에서 드러나듯이 표면적으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신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나 저작배경은 학자들의 추측만 있을 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메시지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인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라는 의미이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띠를 띠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띠를 띠셨다’라는 말은 지금 활동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들이 운행되는데 그것들에게 원칙을 주셔서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친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분의 해를 뜨고 지게 하시고 달을 뜨고 지게 하시며 별들을 움직이십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을 힘들이지 않고 행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오리털 파카에서 빠져나온 오리털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원칙대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으니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왕이셨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그 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3~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크나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크나큰 소리들을 세미하게 만들고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식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능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장 큰 소리로 인식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는 굉음이나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연상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아는 큰 소리는 자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큰 소리는 천둥소리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에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한편 하늘 아래에서 들리는 가장 큰 소리는 물소리였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와서 암벽에 부딪힐 때의 소리가 거대합니다. 또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모인 물이 떨어지며 나는 소리가 거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들

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소리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함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차의 기적소리가 아무리 커도 거리가 멀어지면 아득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인식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들리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회에 잡혔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하자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담하게 읽으니 그런가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군이 아닌 산헤드린공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체험을 하자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산헤드린공회에 붙잡혀 두드려 맞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산헤드린공회는 유대사회의 최고의결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큰 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 정부에 그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높아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리를 이길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후려치는 강한 소리에 이끌려 움직이게 됩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려오면 몸이 움찔하는 것처럼 소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소리에 사로잡혀 말하고 소리에 사로잡혀서 움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헤드린공회의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와 집채만 한 파도 소리처럼 울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소리를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전후의 맥락을 보면 엘리야는 세상 소리를 크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공회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이기고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소리를 이김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올해는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 여기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사로잡힌 결과이고 들리는 소리대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TV나 라디오는 물론이고 친구를 만나도 돈이 최고랍니다. 온 세상이 24시간 내 마음을 향해서 돈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길이 막연해지고 망신살이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자발적인 생각과 말은 거의 없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출발점과 사고의 핵심은 들은 것에 기반 합니다. 이미 인식된 소리에 장악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치체계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일류대학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일류대학 나와야 대우 받는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니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새해 첫날부터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소리에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걱정은 결국 이 세상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인식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음성이 세미해져서 세상 소리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5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 지존자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바깥에서 듣는 것으로 여기지만 안으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 있으면 돈에 관한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공에 대한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으로서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지존자 하나님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존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차단되고 극복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 사건 이후 문을 닫아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자 산헤드린공회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만 보았다가 마음이 주님 따라 올라가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늘로 옮겨주셔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과일을 먹습니다. 그 때에 귀 아랫부분의 어금니를 이용해 씹으면 TV볼륨이 커도 과일 씹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립니다. 내 안에서 나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이 확실해야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의 음성인식은 시작됩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루저다, 돈이 체면이다’라고 별의별 소리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식이 됩니다. 이 음성을 인식하면 삶은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그 뿌리를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세상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성경 말씀도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명령형의 말씀도 맛있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원죄의 체질 하에서 세상을 향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철저하게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더 이상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드높이는 소리들이 속절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도록 지존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함으로서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은 두 번 높이고 세 번 높이고 끝없이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벌레소리처럼 아득해지고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인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존자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